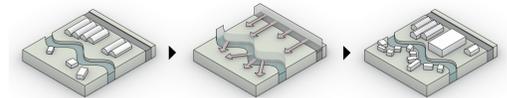


대성지는 서울음이 끝나는 동시에 새로 개발될 창릉신도시가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곳은 문화유산의 고조되고 소담스러운 분위기와 신도시의 활기찬 새로운 분위기가 맞닿는 "절경"이다. 대성지에는 서울음 뒤편에서 시작되어 도시를 관통하는 창릉천으로 모이는 자연의 흐름이 있으며, 서울과 고양, 광주 등 교외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를 끼고 있다.

HISTORY &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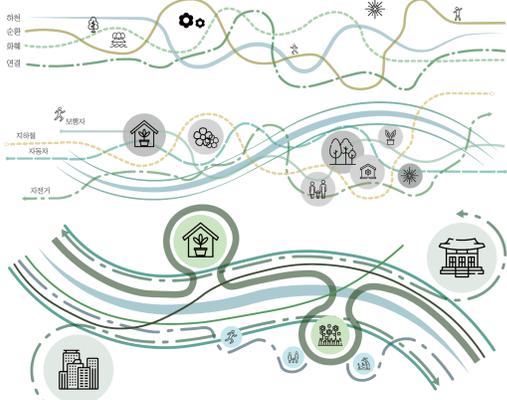


서울을 위한 각종 보존규제와 개발제한구의 규제에 의해 대성지는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했으나, 서울음의 접근성은 높았기에 각종 상점가와 문화체육단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해제 및 신도시 개발이 검토 및 진행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대성지의 변화가 예고된 현 상황에서 기존 화훼유통단지 임주민들 및 지역주민들을 갈등을 없애고, 우리는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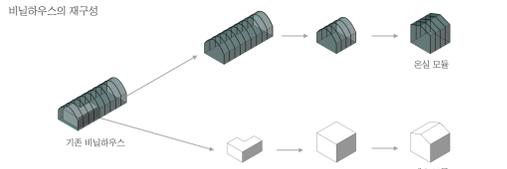
기존에 이 지역의 맥락은 하천 굴곡과 도로의 선형을 따라 주로 형성되었다. 대로에 면한 부분은 도로에 수직적으로 비닐하우스가 배치되었고, 반대편 강변 부분은 하천 굴곡과 평행하게 건물들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에도 기존의 맥락을 유지하고자 같은 원리를 적용시켰다.

ZONING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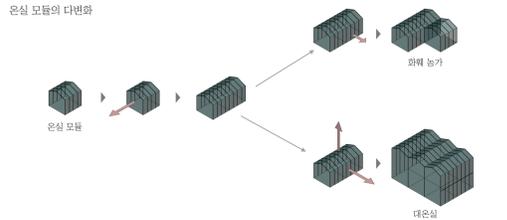


성격이 다른 두 구역을 하천으로 단절되어 그 차이가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단절의 영향을 한데 합쳐서 오히려 연결로써 활용했다. 하천을 따라 화훼 단지이 이어지며 양쪽 구역을 오가면 곳곳에 화훼가 연결되어 하나의 '꽃길'을 형성한다. 또한 서울음에서 흘러온 물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신도시로 흘러가며 그 사이에서 화훼마을과 하천은 중요한 연결 다리로서 간접적인 흐름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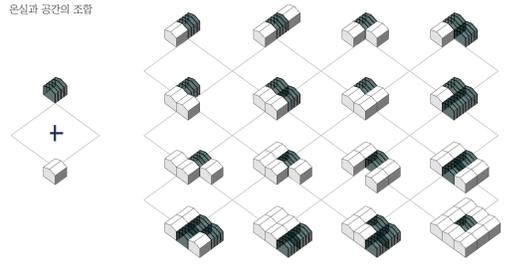
STRATEGY & DETAIL



기존 비닐하우스의 장방형의 형태를 보전하기 위해 온실 모듈의 길이를 늘리며 변형한 뒤 배치해 보았다. 이렇듯 새로 변형된 모듈을 통해 기존 비닐하우스가 담았던 화훼 농가의 형태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이를 뒷방향과 옆으로 확장시켜 대안성을 구성하여 식물들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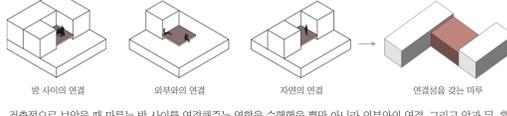


온실과 공간의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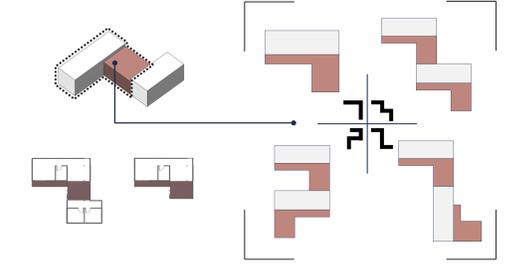
앞서 소개된 온실모듈과, 기존 비닐하우스 내부 메스에서 추출된 메스모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구성했다.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내부에 마당공간이 조성되기도 하고, 마당이 모여 마당공간이 조성되기도 하며 중정이 조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공간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소비 및 체험공간을 조성했다.

마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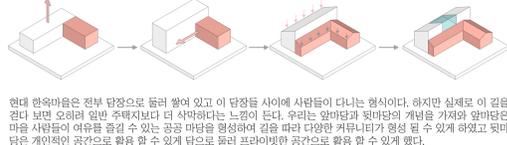
건축적으로 보았을 때 마두는 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 그리고 앞과 뒤, 혹은 다른 방향에 존재하는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마두가 부여해주는 '연결성'에 집중하여 재해석 하기로 했다.

마두의 재구성



경제성과 거주성을 위하여 메스를 현대적으로 구성하였고 이 메스들에 마두를 통해 '연결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연결성은 다른 메스와의 연결 뿐만 아니라 외부 마당과의 연결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두가 연결되어 있는 '1' 형태의 기본 단위로 4가지 타입의 주체를 구성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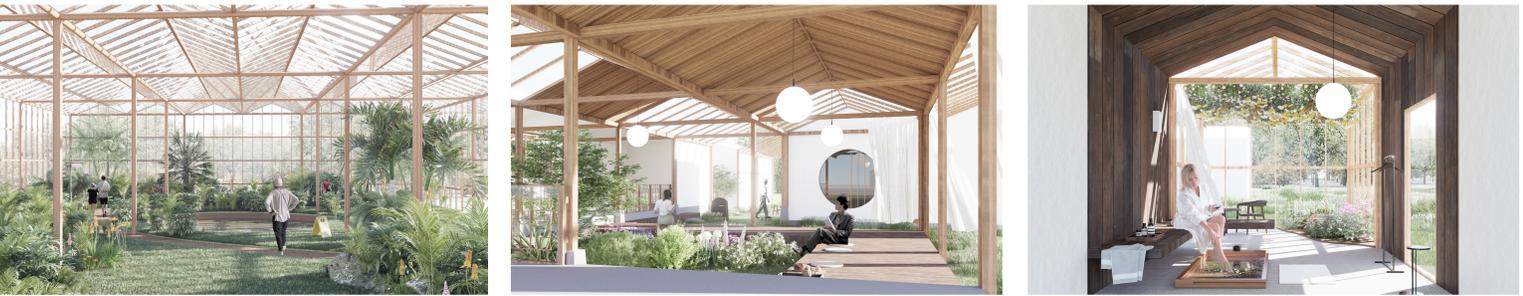
기본 '1' 단위의 구성



현대 한옥마을은 전부 담장으로 둘러 쌓여 있고 이 담장들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형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길을 걷다 보면 오히려 일반 주택보다 더 삭막하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앞마당과 뒷마당의 개념을 가져와 앞마당은 마을 사람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개 마당을 형성하여 길을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게 하였고 뒷마당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담으로 둘러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했다.



화훼의 '기억' 꽃과 식물들이 모여 지역의 정체성을 퍼워내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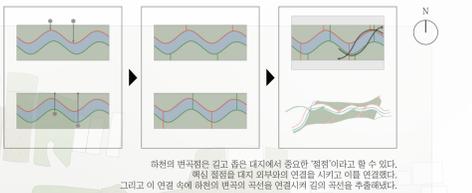


서울음 화훼단지에서 취급하는 식물들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안실 화훼와 마당 공간이 있는 플라워 카페와 체험공간 꽃과 식물들을 이용한 플라워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소운실

MASTER PLAN SCALE 1:1500



- 1 개별 화훼 농가
- 2 대안실 (장방형)
- 3 화훼 체험 부스
- 4 대안실 (단방형)
- 5 화훼 테라피
- 6 하천 높이 보행로
- 7 지면 높이 보행로



하천의 변곡점은 길고 높은 대지에서 중요한 '행랑'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행랑을 대로와 하천의 연결로써 사용하고 이를 연결한다. 그리고 이 연결 속에 하천의 변곡의 곡선을 연결시켜 길의 곡선을 추종해준다.

서울음과 창릉신도시의 절경에 위치한 대성지는 서울음의 여유로움과 신도시의 생활감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대성지의 연결성은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여 신도시 쪽에서는 밀도있게, 서울음 쪽에서는 비교적 낮은 건축을 두고 분포한다.

ISOMETRIC



UNIT PLAN SCALE 1:150



한옥과 화훼, 온실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의 모습



각 가구별로 화훼 육성이 가능한 온실공간